

황성규 제2차관, “대중교통 운행차질 없도록 만전” 강조

- 22일 서울고속터미널 찾아 버스업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2일 17시 서울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버스업계 요소수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황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 및 전국고속버스조합으로부터 버스업계 요소수 수급 및 운행현황을 보고받은 뒤,
 - “요소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, 공급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, 버스업계도 운행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”을 강조했다.
- 아울러, 황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버스업계 전용주유소를 방문하여 요소수 공급 및 재고추이, 긴급물량 배정현황 등 업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,
 - “지난 주 현장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민간보유 요소수 물량 중 20만 리터를 17개 시도를 통해 버스 등 공공분야에 긴급히 배분하였다”면서,
 - “특히, 대체교통수단이 적은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,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운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범정부 요소수 TF를 통해 요소수 수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1. 11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